

거룩한 새로움을 바라보며

젠 파커와 메리 비트너

국가형제회 상임 위원회 합작

“마지막 시기의 이 새로운 복음 전파자는 낙원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처럼 전세계에 복음의 물을 뿌렸고, 하느님의 아들의 길과 진리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설파하였다. 그 결과로 그분이 계심으로써 그분을 통하여, 미처 몰랐던 행복과 거룩한 새로움이 온 세상에 일게 되었다... 선택된 자들의 가슴에 새로운 정신이 태어났고 구원의 기름이 그들에게 부어졌다. (1 켈라노 89)

기대치 않았던 기쁨과 거룩한 새로움을 가져온 성 프란치스코의 넘치는 복음적 삶의 거룩한 홍수에 대해 하느님께 찬미드립니다. 우리 프란치스칸 성소와 형제회라는 선물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과 지난 해 있었던 많은 멋진 모임들, 국제형제회 업적, 모든 단계의 평의회, 여러분한 사람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를 국가형제회라는 특별한 곳에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한 도움이 되는 형제회라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모든 믿는 이에 게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2 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한 답이었던 우리 회칙의 40 주년을 지난 6 월 까지 경축했습니다. 1978 년 회칙이 발표되면서 총봉사자 마누엘 마티올리가 “새 회칙의 발표와 함께 재속 프란치스코 형제회의 쇄신은 결정적이고 강한 시점에 왔습니다...”라고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회는 기뻐하면서 새 회칙 우리를 쇄신하여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 후 40 년간 새로운 회칙, 형제회의 일치, 세계적으로 한 형제회의 재구성 등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제형제회는 우리 쇄신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양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형제회 경영”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구조적으로 한 형제회가 되었지만, 하나로 서로에서 속해 있다는 것을 느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 회칙과 회헌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우리의 성소, 정체, 목적을 완전히 이해치 못했고, 교회가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형제회 지도부는 지적했습니다. 새로와 지고자 하는 우리의 기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원했던 거룩한 새로움을 우리는 아직 염원하고 있습니다.